조계사 도량확장불사 '순조'

87년부터 4천여평 매입…'불교타운' 조성 일환

'한국불교 포교 1번지' 조계사가 커지고 있다. 60여년전부터 빌딩속에 굳건히 정좌해 온 조계사가 새로운 전법을 향한 도량확장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새역사를 열기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도량확장불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조계사는 최근 견지·수송동 일대를 '불교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지난 87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왔다.

이같은 불사는 지난 87년 현근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조계사를 한국불교의 성지로 만들어 포교·전법·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원력에서부터 시작됐다.

조계사는 87년 견지동 53번지 49평 매입을 시작으로 9년여동안 약1백51억여원의 불사금으로 총 4천6백여평의 부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이로써 기존 1천9백여평이 6천6백여평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한 곳은 조계사 인근 식당가와 병원등 30필지를 비롯 최근 39번지 일대 주택 20필지를 매입했다. 이밖에도 93년에는 강서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신정동에 6백83평등 부지를 매입했다.

이처럼 조계사가 매입한 부지는 2천년대의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대작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사측은 견지동일대의 부지를 모두 매입, 신행포교뿐만아니라 세계불교의 총체적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도량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 인터뷰

"견지동 일대 한국불교 성지로"

"20여년전 고산스님께서 조계사 주지로 계실 당시 재무소임을 보았습니다. 사중 살림을 살면서 조계사가 지닌 역사적 지리적 위상에 비해 도량이 협소하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때부터 조계사 도량확장을 절실하게 여겨왔지요."

마치 불도저가 땅을 밀어부치듯이 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4천여평이나 확장한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의 원력은 간절했다. 9년여 도량확장 불사에 매달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이라고 한다.

스님은 "이 불사는 종단 중흥불사차원으로 불교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며 종도들의 중지를 모아 한국불교의 현대적 성지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북한동포를 돕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북한동포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수원포교당에서 특별모금법회를 봉행, 2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총무원은 추석전까지 전국 순회모금 특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해인사 사중마찰 '강원 폐강'

학인스님 종무행정 반발…종회 조사특위 구성

해인사(주지 성법)는 지난 11일 산중총회를 열고 해인강원을 폐강조치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림관계자들은 "해인강원 강주를 비롯 학인들이 종무행정에 반발하며 현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며 강주 학감 학인 등 4명의 스님을 퇴방조치하고 강원을 폐강한데 이어 강원의 전화를 단절시켰다.

이에대해 해인강원 학인스님들은 14일 오후2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전국학인승려대회를 열어 강원폐강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9월12일 오후10시 현재〉

이에앞서 해인승가대학 비상대책위는 지난 5일 조계종 중앙종회 보고를 통해 "방장 혜암스님이 지난 8월 27일 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수진스님을 사임토록 하고 해임총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산스님 등 학인을 해인사를 떠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4일 해인총림대책위내의 갈등을 확인키 위해 법등스님(도리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쌀수입반대 농성 전농회, 조계사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쌀수입반대와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전농련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앞에서 정부의 농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조계사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는 지난 11일 쌀수입반대,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주장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한 공동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내년 2월 결성

실무추진단 출범…교구신도회 11월말까지 구성

2년여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또다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총무원은 지난 11일 사찰-교구-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각급신도회구성 실무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향후일정을 발표했다.

실무추진단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10월말까지 1천8백여개의 사찰신도회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교구신도회를 결성해 97년 2월경에 제1기 중앙신도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찰신도회는 숫자에 구애없이 10여명만 되면 일단 창립하도록하고 재가연합, 전국신도회를 비롯 직능단체는 사찰, 교구, 중앙신도회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각급신도회구성 실무추진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구성된 중앙신도회창립준비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총무원이 직접 주관하게 됐다.

복원중인 선원사터 '본래자리' 논란

강화지역 사학자들이 현재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화선원사 터는 나라의 절인 '신니동가궐' 터로 추정되며 본래의 선원사 터는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앞 일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선원사 학술조사 및 발굴 복원작업 관계자들은 현 선원사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정신대 위령탑·전시관 추진

광주군 부지물색…역사교육장으로 조성

나눔의집(원장 혜진) 숙원사업인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위령탑 및 정신대전시관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혜진스님은 지난 8월16일 박종진 광주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나눔의집 운영현황과 정신대 위령탑 및 정신대 전시관건립 등의 숙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종진광주군수는 군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공 신익희선생의 기념공원내에 위령탑과 기념관을 설립하고 전국민이 성지로써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군 사회복지과는 교통이 좋은 곳으로 1만여평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관광지로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 11일 광주군과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받아 진입로(900m)와 광주 천진암 볼게이트에서 나눔의집에 이르는 도로변에 안내 표지판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문화재지정 예고제 입법예고

문체부, 위원 10명 증원…매장문화재위 신설

문체부는 2일 문화재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7년부터 문화재위원수를 현행 50인에서 60인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문화재 지정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문화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사전조사·검토를 거쳐 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백여건의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비해 전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조사·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보의 경우 심의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토록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조계종·전신회 무관

총무원, 교구본사에 공문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8월31일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 "전국신도회는 신도법에 의해 구성된 중앙신도회와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단체"라고 밝혔다.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와 신도단체에서는 현혹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현행 신도법에 의한 신도회 조직 및 구성에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산스님 82세 입적

부산 여래원 조실 벽성당 학산(碧城堂 鶴山)스님이 지난 9일 오전 8시40분 승랍 52세 세수 82세를 일기로 여래원에서 입적했다.

스님은 1945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제방선원에서 수행에 임했으며 송광사에서 1970년부터 10여년간 유나로 주석했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2일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현불뉴스

능인선원 신협 창립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지난 7일 능인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광스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조합원 및 출자금을 모집한 능인신용협동조합은 현재 4백여명 조합원이 1억5천여만원을 출자했다.

19일 포교국장단 연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포교국장단 연수회를 19~20일 대구 동화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구본사 및 전국 주요사찰 포교국장 40여명이 참석하며, 종단 포교활성화 방안과 하계수련회 운영, 본사 포교국 운영사례 발표와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제적원 철회서 작성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1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조계종 집행부와 합의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로 재결의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들은 조계종에 제출했던 제적원 철회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협의기구설치를 위한 위원은 추후에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22회 종회에서 협의기구위원으로 혜창 정우 성문 현응스님을 선출했다.

19일 교육개혁 세미나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세종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불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상범 동국대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윤이흠 서울대교수와 오형근 동국대교수가 '한국 다종교사회에서의 전통교육위상' '교육개혁과 종교교육제도'를 발표한다.

해외여행 신고 의무화

앞으로 조계종 종무원(주지)이 2주이내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교구본사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종무원(주지)이 15일이상, 년 2회이상 해외여행을 할 때는 총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오는 19일 오후3시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남북합의서 이행의 현실적방안을 도색키 위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음 고정관념이 죽어야…

죽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니까 육신이 죽는줄로 알지 마십시요. 고정된 생각, 고정된 관념이 죽어야 백지장을 뚫을 수 있고 은산철벽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없는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이 죽지 않고서는 변화란 있을 수 없지요. 깨달음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한번이 아니라 죽고 또 죽어야 비로소 여래의 자리에 들어 있지요. (한마음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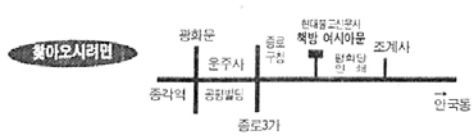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본은 가득,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 개업 2주년

이 땅을 향기 가득한 부처님 세계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불법 홍포의 기수를 자처하고 여러분 앞에 선 지 이제 두 돌.
책방 여시아문은 그간 고객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조금의 게으름도 허용치 않고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이 있기에 책방 여시아문은 이땅을 불음의 향기 가득한 정토의 세계로 가꾸어가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에 걸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정: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 선정 발표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는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고른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을 6명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운용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주소: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737-0695 / 팩스:737-0696